

두산아트랩 공연 2025 ⑤

윤소희

그리고 남겨진 것은

건디기 어려울 정도의 길고 긴 사이

연극

227(목)~31(토) 목금 7시 30분 / 토 3시

쇼케이스 95분

*아티스트 토크 31(토)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는 두산아트센터 팟캐스트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www.poddbang.com/ch/7508

공연 소개

남겨진 사람들과 헤매는 사람들. 먼저 온 미래를 감각하는 사람들. 그것을 우두커니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희곡에 등장하는 '사이'나 '긴 사이'는 약속된 시간이자 끝점이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삶의 시간은 그러한 방식으로 흐르지 않고 미래가 먼저 오기도 하고 과거가 재생되기도 하고 편집점도 없고 컷도 없고 끝의 도착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이 참 무섭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건디기 어려울 미래의 시간을 그려야 했다.

Intro. 우주선이 된 극장, 혹은 극장이 된 우주선

1장. 남겨진 사람들

2장. 헤매는 사람들

3장. 먼저 온 미래

4장. 반복되는 과거

5장. 보편적 인간

6장. 뒤늦은 공포

7장. 멸망, 그리고 지연되는 멸망

두산아트랩은 관객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공연 관람 후 온라인 관객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작성해주신 의견은 창작자에게 전달되어 작품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창작노트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극장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희곡은 생성되는 순간부터 배우의 목소리로 발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쓰인 글. 소리 내어 읽을 때 살아나는 글.

그렇다면 배우의 목소리만으로도 상상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상상만으로 거센 바람을, 물벼락을, 쓰레기비를, 쓰레기눈을 만들어 보기.

나의 거센 바람과 당신의 거센 바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므로, 내가 보는 풍경과 당신이 보는 풍경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앉은 곳과 당신이 앉은 곳에서, 각자 다른 채로 함께 있기.

윤소희 (극작가·연출가)

연극 <식인간인식물> <신촌문예>

도래하는 장면들: 생태드라마터지편<식인간인식물> <희곡-집> 외

기획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윤소희

출연 권서령 김솔빈 박수진 윤희지 하지성

접근성매니저 박소희

사운드디자인 채군

무대디자인 김윤지

조명디자인 고민주

오퍼레이터 최예원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성덕

[두산아트랩 공연 2026 공모 안내]

일정 2025.5.7~2025.6.4

대상 40세 이하, 한국 국적 예술가,
장르 제한 없음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두산아트랩은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